

知識無用論의 위험

여동찬/한국외국어대 교수

장차 문명국가들의 운명이 신념, 조직력과 혁신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아마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승리하고 21세기의 주역이 될 나라들은 세계사회의 상황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능력을 갖춘 나라로서 온국민의 힘을 결집, 동원하면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할 능력을 지닌 나라들일 것이다.

그반면 틀에 박히고 타성에 젖은 생활을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차츰 삼등국민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예측되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탓으로 느끼게 되는 변화현상에 대한 공포증이다.

현대산업사회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산업사회란 노동집약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기술집약산업과 남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집약산업을 거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지식집약산업」으로 이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내일은 성장하는 세

대들에게 능력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제도와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제도도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층의 자세도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제도나 교육의 내용에 관해 길게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를 이끌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인재를 원한다면 가르치는 대로 외우기만 하고 기껏해서 모방능력을 갖춘 인간을 만들기보다 독립정신, 적극성, 능동적인 자세, 조직력과 창의력의 소유자들을 키워야 하겠다.



우리 시대에 와서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공업국들의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의 기술을 도입할 길밖에 없지만 선진국들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일본만큼 도입한 기술을 발전시켜 한단계 올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 기술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서 내야하는 「로얄티」보다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해서 「로얄티」를 많이 받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이 이루어놓은 놀라운 발전, 현저한 기술향상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얻은 훌륭한 성과를 과소 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에 지나칠 정도로 외국기술에 의존해온 한국산업이 최근들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똑바로 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로얄티」 즉 외국기술이전 사용료의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0년 한해동안 한국기업들이 외국기술이전을 위해 지불한 총액은 무려 7,9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 반면에 섬유, 신발 등 경공업의 한국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해줌으로써 생긴 수입은 150억원 즉 그 2%에 불과했다고 한다.

한국기업들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완제품에는 외국기술을 이용할 뿐 아니라 외

“오늘의 세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교육열과 연구개발열이 활발하고 또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국제핵심부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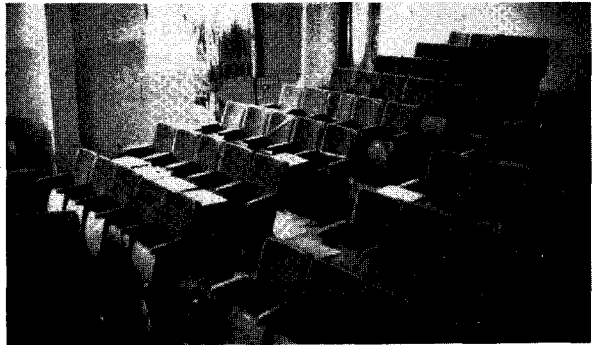
1991년 9월 7일자 모일간지에는 「첨단 산업생산설비 외제일색-반도체웨이퍼 가공장비 100%」라고 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일간지의 1991년 9월 10일자 호에서는 「외국제부품 안쓰면 아무것도 못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런 기사들의 내용만 보더라도 앞으로 한국산업이 갈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욱 멀고 더욱 험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몇년 안으로 한국을 세계의 상위에 속하는 「과학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위정자의 야심과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의 세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교육열과 연구개발열이 활발하고 또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원이 빈약한 일본의 성공은 모방이 아닌 연구개발과 기술창출의 성과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것이다. 21세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 일본은 또한 오늘에 와서 전국토를 거대한 과학연구단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임할 수 있을
 만큼 앞선 잉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최근들어 자만에 빠져 교육열과 연구 개발열이 차지기 시작한 미국의 경우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의 자세와 지식을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간주하는 기업정신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한국사회가 知識無用論(지식무용론)에 치우치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지식보다 졸업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대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지식은 출세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담없는」 강의, 점수가 후한 교수들만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졸업장을 딸 정도로 공부를 마치는 우리 젊은이들은 「월급은 많이 주고 일을 적게 시키는 회사」를 찾아 취업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설사 취업한다 해도 과연 관계분야의 수준을 한단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요구가 많다. 그래서 최근들어 기업체들은 고등교육출신보다 비교적으로 말을 잘듣는다는 전문대학출신이나 고등학

교출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당분간 별지장이 없는 대책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문화와 지식층적의 측면으로 빈곤현상으로 이어질 우려는 다분히 존재한다.

기업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이 아니며 수백년이라도 존속하면서 날이 갈수록 고도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산업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몇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로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없어서 안될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그 인재를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 둘째로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할 능력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셋째로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임할 수 있을 만큼 앞선 잉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업에 입사하기를 지망하는 젊은 친구들은 과연 기업의 그런 목표를 돕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 기업체들은 추구해야 할 목표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일의 성공은 그 댓가를 치르는 사람들만의 것이다. †